





# 악곡 해설

내림가장조, 4분의 4박자의 곡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겨울새에 비유하여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서정적인 시에, 기교없이 깨끗한 느낌의 가락이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이 곡은 작곡가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작곡한 곡으로 제1회 대학가곡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 **작사·작곡가 | 김효근**(1960년~ )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과는 별도로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와 지휘를 비롯한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가을의 노래'. '그리움'. '축혼가' 등이 있다.



# 학습 활동

악상을 살려 극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계이름으로 불러 보자.



<sup>\*</sup>내림가장조는 '내림가(A<sup>b</sup>)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이다.

② 대위법적 기법으로 작곡된 부분을 파악하고 감상해 보자.



③ 화성법적 기법으로 작곡된 부분을 파악하고 감상해 보자.



20



## 1 대위법적 기법으로 작곡된 악곡들을 찾아서 감상해 보자.

대위법적 음악(다성 음악, polyphony):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선율들의 수평적 결합(음을 연속적으로 울리는 멜로디)이 잘 어울리게 들리도록 하는 음악적인 기법



화성법적 음악(화성 음악, homophony): 주선율인 하나의 성부를 여러 성부가 수직적 결합(여러 개의 음을 동시에 울리는 화음, 화성)으로 잘 어울리게 도와주는 음악적인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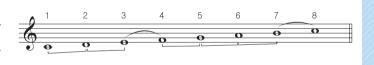
'눈'을 감상하고 악상 기호를 잘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



## 장음계와 단음계

#### 장음계(major scale)

계이름 '도'를 으뜸음으로 하며, 제3음과 제4음 사이, 제7음과 제8음 사이가 반음으로 구성된다.



### 단음계(minor scale)

계이름 '라'를 으뜸음으로 하며, 제2음과 제3음 사이, 제5음과 제6음 사이가 반음으로 구성된다.

- ① 자연 단음계\*(natural minor scale)
- ② 화성 단음계(harmonic minor scale)

③ 가락 단음계(melodic minor scale)

\*자연 단음계는 단음계의 기본 구성으로, 이끔음이 없이 끝나는 느낌이 약하므로 선법적으로 특별한 느낌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